

학생회보

제7호 위상린주 한국학생회 1913년
방학호

▽인사말씀에 대하여▽

어려운 때에 어려운 환경속을 우리들의 생각과 모습의
일단을 기록한다는 위유말에 출범한 우리의 순報도
어떤 半부를 넘었고, 이제는 빼놓을수 없는 처참함의
廣場이 되었습니다. 이는 모두의 열의와 지혜가 集約된
所를 으로서 그 상징적 의미를 아끼려 합니다.

유학생사회의 어떻게 보면 제각기 實質의 배경을 지니고
學習을 위해 모인 특수한 집단입니다. 現實을 보고 느끼는
후은 이에 反應하는 태도도 여러가지일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차이를 넘어 우리를 同一한 線上에 위치시키는 것은
우리가 외국생활에서 얻는 同質的 경험과 후생이라는 신분이 갖는
순수하고 객관적인 눈입니다. 학생회가 순報의 역할도 이로부터
출발합니다.

누가 크고 작은 참여와 의무의 몫을 담당할 것이냐는 문제 보다도
참여의 기회를 마련하고 참여의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우선의
과제일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쁨, 슬픔, 괴로움을 함께 나누는
것 뿐만 아니라 한국인 社會 일반의 문제를 토의하고 정리하는
방향도 모색하려 합니다. 저희들의 작은 努力에 倍前의
忠告와 끊임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會長 崔宰元)

학생회 총회 성료

우현 전 회장의 귀국이 따라 금년도 학생회 총회는 십개월을 앞당겨 지난 6월 12일, U.W 학생회관에서 개최 되었다. 총회에서는 새로 임원을 선출 하고 사업계획을 검토한바, 새로 선출 된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최 재원 (정치학과)
 부회장: 김 철준 (경제학과)
 총무: 한 기인 (원자력공학과)
 재무: 조 미정 (언어학과)

국회 방미 사절단 시어들이 학생회원들과 간담

국회 방미 사절단 일행 (박준규, 김명희, 채문식, 구범모, 민병기 의원 등) 이 시어들을 방문, 학생들과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약 30여명의 학생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국회의원 들은 자신의 필요성, 박대통령의 6. 23 외교선언, 남북대화 등에 관한 폭 넓은 대화가 있었다.

광복절 기념 국악제

8. 15 광복절을 기념하는 국악제가 한인회와 학생회 공동주최로 8월 17일 저녁 8시 - 10시, U.W, KANE HALL, 120 호에서 열릴 예정이다. 교포, 여 러분과 학생들의 많은 참석을 요망하고 있다.

점성숙양 판소리 발표회

U.W 에서 민속음악 전공으로 박사과정을 밟고 있으며 판소리를 가르치고 있는 대한민국 공보부 제정 목소리 국보 후보 인 정양 의 개인 발표회가 8월 9일 8시 U.W 의 KANE HALL 에서 열릴 예정인바 교포, 학생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라고 있다.

신입생 환영 체육대회

신입생 환영 학생회 체육대회를 오는 9월 22일 (토요일), 11시 시너 Woodland 공원에서 개최 예정인바. 인문사회과학 계층 대 자연, 이공 계층의 팀으로 준비해 주기를 요망하고 있다. (배구, 소프트볼)

◆ 이소식 저소식 ◆

김종기 형 ---- 방학중에 L.A. 에 가서 일하고 계신 김형, 여러 친구 들께 문안 편지 보내음.

방선 주형 -- 곧 Canada 로 떠나게 되신 방형, 학생회에 \$10.00 을 기부 하셨음. 그래서 선배가 풍은거지 ----

최익환 형 --- 데번 공주를 얻으
셨음. 첫딸은 세간 딸권이라니
부자 되시었음.

김기상 형 --- 김형 부의에서 가내
수공업으로 TYPING 업을 개업하
시었음 (632-7323)

박준부 형 --- 1년반동안 U.W에서
Post Doctorate로 학생들과
가까히 지내시던 박준부 박사에게
서 밀라노이 대학의 조교수로 발
령을 받고 8월 11일 정은 차이를
떠나시게 되었음. 성심한 말로
로 다 할수 없으나, 만나면 헤어
지드것이라니 별수 없지.

유현 형 --- 동부를 거쳐 귀국중에
있는 전 회장 유현 형으로 부러여
러 회원님께 안부 편지 보내왔음.

그동안 이사하신 회원들:

김도후 형 : 2462 W. Montlake Pl. E.
322-1132.

박건홍 형 : 3775 15th Ave. N.E.
ME2-0310.

백광호 형 : Tel: EA3-5167

그동안 귀국중에 있는 회원들:

백용기 형 : 부부 동반하여

윤희정 형 : 이번이야 드디어 "듣고" 오시겠지.

이창걸 형 : 혹시 "듣러" 가신것은 아니겠지

이형선 양 : "듣러" 가 아니라 "가려"겠지?

이은미 양도 8월 중 귀국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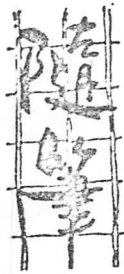
서두수 박사님 ... Western Michigan 대학
에 "한국 교육과 문화" 라는 제목의 강의를
Kalamazoo 이 가셨음. 약 10여일간의
여행으로.

대여 장학금 급여 안내

- (1) 대상: 워싱턴 대학교에 재학중인 한국 학생.
- (2) 대여액: 최고액 150불 (변환시 1%의 이자 계산)
- (3) 대여기간: 3개월 (3개월을 더 연장 할수 있음)
- (4) 관리위원: 씨아를 한인회장, 워싱턴 대학교 재직 한인교수,
워싱턴주 한국학생회장 및 재무
- (5) 기타: 신청인은 워싱턴대 서두수 박사님 (전화: 524-8798) 께 신청을 한후
학생회장 (전화: 543-7308) 께 연락하기 바람.

유현 형 633-5165

서진영 ME2-3567



留學斷想

한기인

미국에 온지도 벌써 2년이 되었다. 미국이라고 말하기 보다는 씨아를 이라고 말하기가 좀더 타당하겠다. 처음 왔을때의 흥분이나 희망은 언젠지 모르게 사라지고 지금은 권태로움만이 남아있는것 같다. 2년이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세월이지만 전혀 허송 세월을 하게 아닌가 하고 가끔 걱정이 되곤 한다. 빨리 이세상과 이별이라던 필적 풀 나이 지만 이와 같은 미국생활이 빨리 지나기를 바라는 이별배반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나이기도 하다. 구태여 나 자신 을 위로 하려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보고 듣는게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위로하기에는 너무도 시간적, 經濟的 손실이 클것 같다. 美國에 留學왔기 때문에 얻을수 있는 혜택도 있겠지만 그대문에 빚어갈 손실도 무시하지 못할것 같다. 미국서 사는 아나 사튀서 사는 사람 들에게 양쪽에 다 적응할수 있는 能力도 필요하겠지만 어떤 境遇에선 이 사회도 저 사회도 적응하지 못하는 孤獨한 存在가 되어 버릴수 있는

可能性도 다분히 있는것 같다. 과연 우리가 미국에 산다고 해서 미국 사회를 얼마나 接近하고 배울수 있는가? 또한 그들이 우리들을 우리들 생각대로 받아 들여 주는가? 결국 우리들 생활권은 이곳에 있는 한국인 사회에 局限 되는것이 아닌가 한다. 이 留學生活를 좀더 밝고 바람직하게 하는 工夫있는 일들은 내가 느낀 한도 내에서 이야기 해볼 事다. 남의 短점은 밝히는 일이니 별로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말하고 싶었던 것 같다. 처음 내가 왔을 당시의 몇몇 留學학생들의 拳투 경기는 플레이와 프리에러의 15 Round 를 방불케 하는 精彩였으며 특히 選手들 자체 試合은 새로운 競技이지만 상당히 인상 깊은 경기로 많은 觀衆을 끌어들였다. 뿐만 아니라 韓人 體育發展上 공헌한 바가 상당한것 같다. 또 생각나는 일은 아예 賸物을 사들고 賣기에 뛰쳐 나오는 학생들은 아예 초창하지 않음으로서 학생들의 精神的, 財政的 고민을 해소시켜주도록 선처하여 주신 몇몇분들의 善의는 높이 評價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賸物한 만한 일은 아예 씨아들에게 새로 온분들에게 약속하나마 지분조판의 거래를 준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다. 서로 신분 소개도 하기 전에 화선생금이나 Po 선생금을 보시고 아예 안전 출수하고 쓸어가지 않을수 있는 거래를 준것은 앞으로 계속 추진 발전되어야 할것 같다.

가끔 원종의 사신을 통리며 혹자가
 일컫는 한국 민족의 정기를
 外國 政府 機關에 보내
 주는 民間 外交 로서의 使命
 을 다함은 지양스러운 일이라
 아니 할수 없다. 끝으로 별로 지양
 할만한 원은 아니지만 또한 내가
 느낀점은 社會的인 力量에 달려
 있겠지만 특히 여성층이 아무래도
 환경에 적응이 빠른것 같다. 원래
 여성이 감수성이 빠르니까 오히려
 당연하다고 보아야겠지만 여성
 분들이 미국생활에 좀더 재미를
 느끼는것 같기도 하고 또 흥글
 면에서는 특히 탁월한것 같다
 강간사도 벌써 영어화 했으니
 그들의 언어적 감수성이 부러워진다
 그다음에도 우리 한국사회의 지양
 할만한 일이 몇몇 더 있으나 지면
 관계상 약하겠거니와 더욱더 발전
 타개를 기대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 하면 한국인들의
 생활이 너무 建設的이고 발전적
 인것 같아서 전혀 지루함이 없어
 보이나 그렇지는 않다고 본다
 그러나 그런건 조금이나도 남이었
 다고 생각하는 人格이 작을까봐
 입을 꼭 다물면서 나의 2년 동안의
 씨아를 生活의 回憶記를
 終할까 한다.

(原子力工學科)

시단

山 川 紀 行

장발인데도 무삿날보다 한산하다.
 가뭄으로 논에서 더운 먼지가 일고
 지붕도 돌담도 농삿꾼들처럼 지쳤다.

아내의 무덤이 멀리 보이는
 구판장 앞에서 비스는 섰다.
 나는 아들놈과 노점 포장 아래서
 외국자본이 만든 미지근한 음료수를 마셨다.

오랜만에 보는 시골 친구들의 눈은
 왜 이렇게 충혈돼 있을까.

발이 없다. 그제 손을 잡고
 흔들기만 한다. 그 거짓된 웃음.

돌과 흙통이와 곡괭이로 어지럽던
 좁은 들전 골목. 농삿꾼들과
 광부들의 싸움질로 시그럽던 이밭소 운.
 의용소방대원들이 달음질치던 싸전 길.

장발인데도 어더고 무삿날보다 쓸쓸하다.
 아내의 무덤을 다녀가는 내 손을
 뻗뻗한 손들이 잡고 농지를 앓는다.

서율. 申庚林

◀ 소개된 글쓴이 신경림 씨는 농촌문제에
 관심을 갖은 시인으로 최근 시집 "農 舞"
 를 발간하여 주목을 끌고 있다. ▶

금년도 학생회 회비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학생회비는 년 #2.00 이상이니, 응봉하는 봉투에 넣어서 반송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생회 운영을 위하여 8월 30일 까지 보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편집 후기 —

▲ 방학중의 쉬려고 한 학생회보를 맞소 하게나마 몇장 편집,
무더운 여름 공부, 혹은 일이 많을지는 여러 회원과 선배들께
문안 겸 띠어 보내기로 했다.

▲ 그간 본 학생회보의 사장이 바뀌었고, 몇몇 학생이 공부를
마치고 귀국 하는 등 학생회 내의 변화도 많았고 전해야 할 소식들도
많아 계획이 있던 방학호를 꾸며 보았으나, 그간 그림과 글씨로 본
회보를 예쁘게 꾸며 주시던 조희정 형께서 뜻한바(?) 있어 귀국 하
는 등의 것 하나 없는 무이 간소한 회보가 되고 말았다. 전공을
다시 재 정비하여 정식으로 신문은 제작 할 것은 기약하면서, 여
러 회원들의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 계획했던 학생회 운동회도 난의 有罪로 流출 되고 말았다.
9월 신입생 환영 운동회는 수업 후의 일이니 지금부터 달력
표시 해 주어 성황은 이루게 해 주시기 바란다.

▲ 국회의원 방미 사립단 일행이 이곳에 들어, 우리를 끼리의 대며
잡학금이 있다는 말에 감응하며, 금 일봉을 잡학금이 보러 오라고
회사 하였다.

▲ 이번 호 회보는 김철준 형 (본사 부사장) 탕에서 제작
하였다. 특별히 Mrs. 김의 노고에 감사하며, 최재원 사장은 이거
에 평생 학생회보 구독권을 증정할 뜻을 밝힐 바 있다.
편집후기를 마치면서 "신문제작과 민폐" 라는 제목의 세미나로
주시 들어 갔다. 참가자는, 박건홍, 한기인, 최정민, 오근호, 서진형,
유재건 제 형들. 세미나 결과는 다음호에 ----

<附>

學生會 財政 報告 (1972.10 ~ 1973.6)

總 收 入		總 支 出	
1. 이 월 잔고	43.76	1. 一般經費	
2. 회 비	73.00	학생회 총회 경비 및 회식비	82.10
3. 회 식 비	39.00	기타 집회 비용 (2회)	7.37
(회원 donation)		회원 경조비	6.12
4. 신입생 환영회비	21.35	기타 잡비 (사무용품, 우편, 인쇄등)	18.68
5. 명 화 수입	141.25	小計	114.27
6. 학생회 기부금	45.00	2. 事業費	
김혜성 (30.00)		新入生 환영회	43.62
이현기 (10.00)		명 화 상 명	82.79
7. 학생회보 수입	247.00	대여장회금기금	50.00
A.S. U.W. 보조금 (232.00)		배구대회 경비	19.71
광고 수입 (35.00)		학대음악회	10.50
기 부 금 (10.00)		小計	206.62
(정재삼)		3. 학생회보발행비 (6回)	
		인 쇄	156.90
		우편요금	44.80
		기타경비	48.56
		小計	250.26
總 計	640.36	總 計	571.15
		이월잔액	69.21